

“꿈의 나라’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스와위(왼쪽)와 유숙(오른쪽), 유누스(뒤쪽)씨가 14일 오전 무안군 청계면 청수식품(주) 공장에서 소금 가공제품을 포장·운반하고 있다. 위 사진은 청수식품(주) 김종갑(가운데) 전무와 직원들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 고향에 돌아가 공장을 세우고 싶어요.”(유숙·25·인도네시아)
“열심히 돈 모아서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유누스·27·인도네시아)
여전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꿈을 이루기 위한 희망의 땅이다.
유숙과 유누스, 스와위(25·인도네시아)씨도 지난 9월 가족과 고향을 뒤로한 채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무안의 소금가공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한국의 한 달 벌이는 인도네시아의 6개월치 생활비와 맞먹어 계획대로 돈만 모은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맡게 된 첫 업무는 가공식품을 포장하는 일. 한국어와 영어 모두 서툴렀던 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관리자들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힘들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따라하며 일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인 일하는 모습 따라하며 하나씩 배워

“돈 모으면 고향 돌아가 공장 세우고 싶어”

단순 포장 업무 일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낯선 한국문화와 서투른 한국어, 입맛에 안 맞는 한국 음식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는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회사에서 마련해 준 컴퓨터로 고향 소식을 접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만만찮은 외국생활이지만 힘들고 고단하기 보다는 오고 싶었던 ‘꿈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회사에서도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한국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직접 인도네시아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기술사를 개조해 주방을 만들었으며 매달 쌀(60kg)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미용실을 운영하는 직원 가족이 가끔 들려 이들의 머리도 다듬어 주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전직원이 함께 순천만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농사를 지었던 유숙씨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며 “열심히 일을 배워서 고향에 돌아가 공장을 차리겠다”고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도 따고 한국에 오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유누스씨는 “3년 동안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 예쁜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좋은 집을 지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청수식품(주) 김종갑 전무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일도 열심히 하고 워낙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 기특하다”며 “이 친구들이 가져 온 한국어 교재에서 ‘배리지 마세요’라는 문장을 봤을 때 마음이 안 좋았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에 문을 연 청수식품(주)은 신안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천일염을 원료로 다양한 소금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 2006년에는 전남도로로부터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14 소금공장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 유숙·유누스 씨

■ 산업연수생 국내 불법 체류 얼마나

■ 최근 10년간 송출국별 이 탈자 현황

송출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네팔	2	19	11	22	23	119	32	326	581	482	22
미얀마	10	86	41	34	7	76	24	40	238	275	50
방글라데시	208	325	134	77	43	48	22	359	0	4	3
베트남	102	492	428	258	89	432	192	1,077	1,819	1,105	211
스리랑카	22	32	39	22	8	106	57	154	566	298	43
인도네시아	20	93	161	139	76	767	156	324	931	659	226
중국	112	408	416	217	166	344	166	333	500	448	126
필리핀	88	189	198	100	51	355	103	418	724	453	155
파키스탄	13	22	23	14	12	39	18	275	316	685	59
이란	2	4	0	1	0	1	1	7	10	26	0
우즈베키스탄	5	19	58	22	26	310	200	227	846	583	82
태국	6	14	35	12	4	65	15	82	267	382	187
몽골	8	28	32	15	10	187	128	164	492	317	36
키르기스스탄	0	1	13	14	2	40	60	29	115	182	42
캄보디아	0	0	0	0	0	0	3	21	205	147	41
계	598	1,732	1,589	947	517	2,889	1,177	3,836	7,610	6,046	1,283

(자료: 중소기업청)

올해만 1,200여명 달해

2006~2007년 이 탈자 급증...인도네시아인 가장 많아

외국인산업연수생의 국내 불법 체류자가 1천283명에 달하며 이중 인도네시아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국내 이 탈자가 2008년 현재 모두 14개 국적에 1천283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국적이 226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11명, 태국 187명, 필리핀 155명, 중국 126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방글라데시 국적의 불법 체류자는 지난 1998년 208명에 달했던 것이 3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폐지 이후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거나 고용허가제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 연수생 인원은 연 1만547명이었으며 1995년에는 3만354명으로 늘었고, 2006년에도 2만8870명이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7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신분불안 등의 우려로 2006년과 2007년에 이 탈자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7월18화 송대관	 20목21금 최진희	 25화 박현빈	 27목28금 김수희	 4목5금 설운도
-------------------------------------------------------------------------------------------------------------	-------------------------------------------------------------------------------------------------------------	-----------------------------------------------------------------------------------------------------------	---------------------------------------------------------------------------------------------------------------	-------------------------------------------------------------------------------------------------------------

호박 나이트 OPEN 등
광주첨단 · 폭스존 옆